

목포권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란

내년 7월로 예정된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사)한국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인력과 노선의 구조조정, 투명한 경영진단, 효율적인 감차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贊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위해 불가피”
反 “年 60억 이상 세금 투입돼 재정부담”

업체 투명성 확보·적자폭 최소화가 관건

운수업체가 경영권을 각각 갖고 수입과 지출은 두 기관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사업자에게는 적정 운송원가가 보장되고, 운수회사에게는 임금 인상 등 복지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예정이며 특히 준공영제가 본격 도입되면 매년 6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지원액이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보여 목포시민 1인당 연간 2만5천원 이상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들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민 참여 예산제로 재정 투명도 높인다”

진도군 ‘참여마당’ 마련
진도군이 주민들에게 긍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문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진도군은 최근 각계 인사 20명이 참여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진도군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마련된 메뉴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이용하면 된다. 진도군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전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무안군 3년 연속 대상 수상

무안군이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8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인본인 포럼’이 제정한 상으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 확충해 왔다. 무안군은 이번 수상으로 무안 기업도시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대성기자 dss@



“진도 관광 사진 공모합니다”

11월 10~21일까지 출품작 접수
진도군이 지역 관광자원을 소재로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진도의 자연 경관, 문화유적, 전통 문화, 축제와 예술, 공예 등 진도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전국 작가, 동호인 등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안 온실가스 감축 해조류 양식단지 조성

신안군은 2009년도에 5천만 원을 들여 기본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경우 내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형 양식단지 조성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전복양식장 사료의 안정적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로 굴착공사는 야간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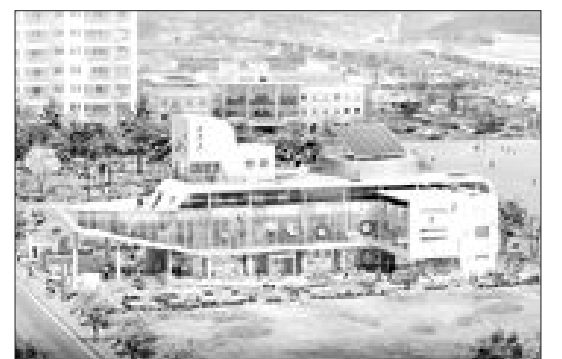
목포시, 보행권 확보 등 도로공사 개선책 호응

목포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 공사 중지 등 도로 굴착공사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가 마련한 개선책은 ▲이중 굴착 방지 ▲출·퇴근 시간 공사 중지 ▲단거리 및 교통 혼잡구간 야간공사 의무화 등이다. 또 단거리 후쿠 공사를 시행하고 현장에 공사 안내문 부착, 도로 굴착시 보행권과 우회차선 확보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힘써 쓰고 있다. 목포시는 동명동을 비롯해 만호, 용담, 산정, 목원, 삼학동 지역 67.4km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구간가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It lists various districts and their corresponding phone numbers for the 光州日報 (Gwangju Daily) subscription service.

목포 어린이 도서관 오늘 ‘첫 삽’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시민들의 지식 정보센터로 거듭날 ‘목포 어린이 도서관(조감도)’이 24일 착공된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어린이 도서관은 46여 원이 투입돼 석현동 375번지 석현초등학교 옆 2천 5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해양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선박 모형으로 설계된 어린이 도서관에는 사무실, 전시실, 모자(모자) 열람실, 디지털 영상실, 아동 열람실, 어린이 극장, 배움터 등이 들어선다. 목포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놀이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



목포 도서관 내부를 건립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Advertisement for Hanmaeup Law Firm (한마음법률경제(주)). It features a large headline, contact information (362-6001), and a detailed list of legal services offered in various districts like Seogwipo, Mokpo, and Gwangju.

Advertisement for GMD Real Estate (금당부동산). It includes a phone number (062)223-7400 and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such as property management, leasing, and sales in the Gwangju area.

Advertisement for Ilgongin Real Estate (일가공인중개사).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234-6216) and lists services for property transactions,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Advertisement for Daedong Real Estate (대인동삼일부동산).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223-1140) and promotes services for finding good locations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providing real estate advice.